

## 라인케 부종의 수술 전후 음성분석

김광현, 성명훈, 고태용, 박홍주, 김동영\*, 김정준, 이상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성대주름을 덮고 있는 점막과 안쪽의 성대근육, 성대인대 사이의 잠재적 공간을 라인케 격간이라고 부르고, 이 부위의 광범위한 부종으로 인해 진성대가 마치 물주머니처럼 보이는 폴립양비대를 라인케 부종이라고 한다. 라인케 부종은 특징적으로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때로는 성대남용이나 위-식도역류와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병리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1996년 1월부터 1998년 9월까지 15례의 라인케 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이 될만한 위험인자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수술후의 스트로보 후두경 소견과 음성기능검사 결과를 정상인과 비교 분석하였다. 남녀비는 남자 13명, 여자 2명이었고, 연령은 48세부터 69세까지로 평균 52.1세였다. 음성기능검사는 수술후 평균 10개월째 시행하였다.

수술후 스트로보 후두경 소견에서는 부종 및 성대진동의 호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수술후 음성기능검사에서는 남자에서 기본진동수가 106.7 kHz로 정상인의 값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문하압은 13.8 cmH<sub>2</sub>O로 유의하게 높았다.

라인케 부종에서 수술을 통해 성대의 부종과 진동 및 음성의 호전은 가져왔으나 성문하압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후 음성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